

#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  
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  
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  
십시오. 조계종 한가람선원의 대행  
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nia.com/mem/ha  
nmaum

## 법공양 페이지

# “욕심때문에 ‘자유자재권’ 제대로 못써”

17면에서 계속

습니다. 여러분 한 몸뚱이속에 생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몸뚱이에 더불어 같이 사는 생명체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나부터 공생인 줄을 알아야 이 세상에 모든 상대성원리가 다 틀어 아닌 줄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몸뚱이 하나를 생각해 도 더불어 살고 있으려면 어떤 일 했을 때 내가 했다고 하며, 어떤 것을 먹었을 때 내가 먹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까. 만약에 눈의 시력이 없다면 누가 시력이 없었었다고 할까요. 안에서 작용을 못해 주게 되니까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일거수 일투족 다 사는 게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니까 나부터 공한 줄 알아야 바깥의 세상도 다 공해서 우주 삼천대천세계가 다 틀어

닌 얘기죠. 부처님의 그 말씀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살아나가는 진리가 바로 그러합니다. 지구 안에서 나를 알지 못하면 지구 바깥의 모든 외성에 대해서도 하나 같이 공감할 겁니다.

상원사에 있을 때 얘깁니다. 아마 한 삼십년 전쯤 되는군요. 어떤 노인네가 막 내 아들이 다 죽게 되니까 그 산을 올라 왔어요. 백발노인이 힘들게 올라오니가 산을 내려가던 신도가 사정을 물어봤나 봅니다. 다 듣고서는 “스님이 벌써 아시고 나를 보냈는데 집에 가보면 나올거라고 그랬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나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진실로 그 노인을 안타깝게 생각하거나, 혹시 험한 길에 땀 흘려서 돌아오시면서 어쩌나 하는 생각이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랬는데 집에 가보니 아들이 일어나 앉아서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여러분이 생



그림 · 최주현

### “어려운 사람 물질로 못도와도 ‘도와주면 좋겠다’ 마음내면 우주상·유주상보시 함께 돌아가요”

안한 줄 알게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저절로 갖다주고 내가 배고플 때 밥을 저절로 갖다주게 되지, 동심이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뽀뽀이 흘러진 나의 한 개체를 살리겠습니까? 이 우주 삼천대천세계가 모두 동심(同心)이며 내 동생(同生)이며 동체(同體)입니다. 물 한방울까지도 말합니다.

각하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보살로서 보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수만 개라 할지라도 보살은 하나가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함마음’이라 하겠습니까. 일체 한마음으로, 한마음 속에서 빨간 것도 나오고 흰 것도 나오고 주홍색도 나오고 자색도 나오고 다 나오듯이, 지장도 나오고 관세음도

나오고 칠성도 나오고 해신도 나오고 산신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다 보살입니다. 보살행을 하시는 부처입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을 못하고 조그만 일이라도 생기면 죽는 시늉을 하고 마음을 좁게 쓰니까 보살이 할 일을 못하죠. 쉽게 예를 들어 마음 속에서 입자가 나가는데 보살, 응신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응신이 나가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돌아오니까 또 들어와야 될 텐데, 마음을 응졸하게 쓰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 공리를 하지 마라 이겁니다. 살 양으로 애쓰지도 말고 죽을려고도 애쓰지 말고요. 허허허. 나는 ‘그래야 삽니다’ 이런 소리 안합니다. 사는 것은 자기 스스로 알아질 테니까요.

저는 여러 생을 두고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렇게 배웠습니다마는 하여튼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이 없이, 잘못된 것도 함이 없이 했고 잘한 것도 함이 없이 했는데, 내가 해를 줄 봤다 하더라도 그 생각을 없애면 그쪽에도 없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그쪽에서 십억원을 잃어버렸다면 그 집에게 십억원이 다시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이자처서 들어오게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잘못했지’ 하는 그 구닥다리 같은 집착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는 것도 자기가 마음을 어떻게 쓰나 하고 테스트 하는 거지, 누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갖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공부하는 사람들인데 감히 어디 딴 데서 공부하냐! 다 틀어 아는데! 변연히 아는데! 하더라도 알아가는 새들도 변연히 아는 것을 말합니다.

무서운 개나 호랑이같은 것들도요. 변연히 서로 틀어 아닌 마음을 아니까 지켜주고 또 나쁜 사람이 오면 막아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몸을 사리고 그렇게 내면지지 않았으면 아마 짐승들이 지켜주지 않았을 겁니다. 어찌봐 한번 나와서 한번 갈 것들, 그렇게 살면 필하고 저렇게 살면 필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살다가 내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죽는 것을 서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평개진다면 세계생생을 얻습니다.

남에게서 받는 것보다 내가 남에게 주고 사는 것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마음공부를 하시니까 우주상보시의 공덕에 대해서 잘 다실 겁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보면, 물질적으로 도와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잘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내서 우주상보시를 한다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보시중에 제일입니다. 왜냐하면 우주상보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했다는 상 없이 함이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물질보시는 중요하지 않고 공덕이 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도 우주상·유주상 보시가 함께 돌아가야 합니다.

예전에 공부하러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동네에 부잣집 아들이 다 죽게 생겨 무당 일꾼이 와서 곳간을 빌렸는데 아주 대단했어요. 부잣집이니까 먹을 것도 많이 차리고 돈도 많이 놓았으니 무당도 아주 신바람이 나서 춤을 추고 그랬다. 나는 그때 산을 지나가다가 우뚝키니 앞에서 내려다보니까 그것은 곳을 해서 나를 빙이 아리네요. 그리고 그 동네는 아주 가난했죠. 어떻게 하면 동네사람 전부가 밥이라도 한끼 먹을 수 있을지 생각하다가 그 동네로 슬슬 내려갔어요. 그리고는 동네 개를 불러서 곳간을 전부 열어버리게 했더니 무당들이 놀라서 뽀뽀이 흘러지고 말았죠. 어쩔 줄 모르는 부잣집 주인한테 내가 그랬어요. ‘당신 아들을 고쳐줄테니 동네 사람한테 쌀 한가마씩 줄 수 있느냐?’고요. 그랬더니 ‘아, 줄 수 있고 말구요’ 하는 겁니다. 나중에 들리는 얘기로는 의아를 살려냈다고 하면서 오히려 쌀을 한 가마씩 받은 동네 사람들에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때도 버릇만 가르치지 남을 망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잘하는 얘기로는 의아를 살려냈다고 하면서 오히려 쌀을 한 가마씩 받은 동네 사람들에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길을 가다가 어느 가난한 집에 들러 시주를 받아 공양을 하게 되었는데, 제자는 하도 고마워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한 짚 해다 주었습니다. 그걸 본 스승이 제자에게 막대기로 내려치면서 ‘이놈아, 그까지 한번 불때고 말면 없어질 것을 공부한다는 놈이 기껏 그런 것으로 갚으려 하느냐. 무주상보시가 있지 않느냐’ 했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은 참으로 야속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극하게 마음을 내 준 이후로 가난하던 그 집이 잘 살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여튼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보고, 또는 인연에 따라서 모습을 가지고 불쌍하다고 그러지만 그래봤자 그것은 한치도 우주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만 보지 말고 요다음도 봐요. 그래서 예전에 도인들은 냉철하다고 했습니다. 내일을 생각해서 우주상으로 하시기 때문이죠.

도인이라는 게 별갑니까?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잘했든 못했든 지나간 것은 버리고 살죠. 그리고 새 걸로 입력을 한다면 앞의 것은 꼭 지워져 버리고 새로 입력된 것만 들어가요. 놓는 입력만 들어가서 나올 때는 입력된 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순조롭게 살 수 있죠. 일체제발이 다 알고 있고 하다가 못해 미생물까지도 알고 있어요. 언젠가 도 얘기했지만, 서산대사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렸다고 했지만 죽일려고 떨어뜨린 게 아니거든요.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나 하면 ‘출지! 날아가는 새의 마음을 돌 아리게 보고 내려오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 내려오는 거지 별 수 있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한 건 비행기가 가는데도 사람 마음에 달려있어서 사람 하나의 마음을 동요시키면 비행기가 그

짓발도 남에게 이익된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자비지.

그러니 살아나가는 데 요만한 애로가 있고 이만한 애로가 있고 그런 것도 없 시간부터는 다 버리세요. 버릴 것도 없는 것을 지금 버리라고 합니다. 허허허, 그냥 없어지니까 버릴 것도 없죠. 본래 버릴 것이 없어서 마음이 편안한 것과 버릴 것이 없는데도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 버릴려고 애쓰는 사탕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사람은 차원에 따라서 주어지는 문제가 얼마나 천차만별인지 몰라요.

### 제 공부가 너무 미진합니다

저는 진주지원에 다니는 신도입니다. 스님과 인연된 지도 오래되었고 매일 법당에 가서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합니만 제 공부가 너무 미진합니다. 열심히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공부가 잘 될는지 스님께 다시 여쭙습니다.

지금도 얘기하고 있지만 공부가 잘 되는 거는요, 염불을 하고 절을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사는 모습은 참나팔아 없어도 잘을 게 없거든요. 그냥 자기 한발로 뛰며 뛰며 가는 겁니다. 손없는 손과 발없는 발이 그대로 여여하게 함이 없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상도 자기 모습이니 들로 보지 마시고 자기 주인공 자리에 진실하게 관하십시오.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저 부처님을 몇 번이나 부순 줄 아십니까? 자기 모습을 잘 모르고 부처님 상에다가 기도하고 하단들이란 말이예요. 그래야 공부를 하겠으니까 부순거란 말입니다. 법당을 들어가면 세 번을 절하고 예배를 올리고, 들로 보지 말고 다 거기다 말겨놓고, 전부 동글게 자기 주인공에다 한테 합쳐서 나가시고 그래요. 모든 건 자기 주인공한테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된단 안된다 하고 따진다면 도는 이루지 못하죠. 이거 한 가지만 알면 거기서 의학도 나오고 과학도 나오고 전체가 다 나오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부지런히 일을 하되 그 것이 공덕을 짓는 인연이 되며, 인연을 짓되 함이 없이 하는 걸 알아야 그게 큰 공덕으로 갑니다. 그리고 걱정을 하지 마세요. ‘안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되게 하는 것도 너 아냐’ 하구선 거기다 하는 거지 아, 되지만 하면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안되는 것도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알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이 밥맛이 생기고, 해가 뜨고 지고 하는 것, 이것이 그대로 진리거든요. 우리는 이미 그 진리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나 아주 담담하게, 풀러서지 마시고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오직 그놈이 하는 거니까 그 자리에 맡기고 걱정을 하지 마세요. 벌써 한발씩 떼어냈는데 이미 지나간 한발씩 걱정도 하지 마시고 오직 많은 내일을 두고도 끊어 죽을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 절 불사에 어려움이 많아요

지금 진주지원에 불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올 10월쯤 준공법회를 열었으면 하오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스님께서 마음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부처님 이 계시다면 할 것이고 안 계시다면 못하는 거지 그걸 왜 걱정을 붙들고 합니까. ‘그게 빨리 돼야지, 더디면 어떡 나?’ 이라고 예타는 사람들은 이 도리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삽님이 가진 백년이거든, 또 공방 되든지 그건 부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나한테 그 거 하라고 꼬리표해서 붙여놨나요? 그러니 모든 것을 다 걱정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심부름을 하되 진실으로 묵묵히 그냥 하는 것이 진짜 공덕입니다. 열흘이 되는 스무원이 되든 내가 할도만 열심히 하고, 되고 안되고의 양면은 걱정하지 않으시는 게 바로 부처님하고 직방 통하는 길이에요.

# “받기보다 남에게 주는 삶처럼 좋은 것 없어” 내 할 도리 다 하고 ‘되고 안됨’은 놓아야 공덕

머시아문의 새책

## 생활 속의 불법 수행

삶의 진실에 다가서지 못한 젊은 또다른 병통입니다. '길을 묻는 이'와 '대행 스님'이 나누는 이 책의 물음과 답변들은, 삶의 진실에 대한 절절한 의문과 대행 스님의 大用心이 깃어낸 깨달음의 체험입니다.

이 책에 소개된 300여 항목의 질의 응답은 현대불교신문 창간호(94. 10.15)부터 143호(97. 9. 24)까지 '길을 묻는 이에게' 1년에 연재되었던 것을 주제별로 묶은 것입니다.

최근의 절박한 경제난 타격을 한 평민으로 대행 스님의 가르침을 널리 나누고자 500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독자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불필요한 경비를 제하고 재정유지를 사용한 것도 원래의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머시아문의 의지를 실린 것입니다.

머시아문은 '물론 바쁜 자에게는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라는 정신으로 시대의 필요 및 욕구를 반영하였습니다.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02)737-0695, 팩스 : (02)737-0696

### 현찬 이여권